

총장-뉴스레터 - 71(2024-1-19) 출 14 장 1 절-14 절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바다와 므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기 14:2)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인간의 사고와 달리 한 시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그 길에서 되돌아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명하신다.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치러 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 그들을 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입증하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바로 의 마음이 강박해짐

하나님과 바로의 힘겨루기에서 그 마지막 절정이 다가와졌다. 권력에 눈이 먼 바로는 파멸로 치닫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자기 영광을 입증하여 스스로 명예와 명성을 얻으시려 하신다. 군사적으로 진을 구축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막다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왕좌왕 헤매다 결국 막다른 곳에 갇히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바로가 애굽의 정예군인 병거 부대를 동원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이해할만 하지만, 이는 그들의 기억력이 모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로도 거듭거듭 같은 말로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한다'. 여기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상화하거나 영웅화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상대자가 되기에는 이들이 얼마나 모자라는 자들인가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모세의 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신다는 약속은 '내가 거기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시고,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일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권면하였다. 달리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계속 불평하며 두려워 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잠자코 있으라'고 한 것은 불평하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입은 가만히 두고 눈으로만 그 싸움을 지켜 보며 그 구원의 승리를 지켜 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를 내리신다.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심으로 그 대적들을 그들 생전에는 다시 볼 수 없도록 철저히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홍해 사건을 계기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려는 계획을 완전히 거두어 들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추격에 대해서는 우려함 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기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했을 때 애굽 궁정에서 40년간 애굽인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모든 지리를 익혔던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절망적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도 부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며 그의 정하신 길을 찾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알고 인내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